

권력의 칼날아래 죽어서도 옆구리 시린 '운명'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 ⑤

제1대 태조의 비 신덕왕후-정릉
신덕왕후(?~1396) 능호:정릉
부:곡산강씨 윤성 모:진주강씨
자:방번(무안대군), 방석(의안대군) 녀:경순공주

벼들일 한줌에 운명이 바뀐 여인,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을 250여 년 동안 감당해야했던 여인, 피지도 못한 10대의 아들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 죽어서도 이리저리 찢기고 밟힌 여인, 그녀가 신덕왕후 강씨다. 정릉에는 한이 많다. 이들을 왕위에 올리려다가 관한 무덤조차 갖지 못했다.

문상객 뜬한 초상집 풍경은 처연하다. 고인의 생전 이력, 자손들의 숫자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상가 풍경은 흥청거려기도하고 적막하기도하다. 외파로 떨어진 쓸쓸한 무덤 또한 처연하다. 죽어서조차 옆구리가 시리다. 신덕왕후의 정릉이 그렇다. 조선 왕릉



정릉 전경. 병풍석이 없다.



덕수궁에 보관되어 있는 흥천사 대종.

중 홀로 묻힌 단릉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왕릉군에 속해 있어 가까운 곳에 혼령들의 말동무가 있다. 생전에 서로 면식 없었지만, 관람객이 떠난 밤중에도 소곤거릴 수 있다. 쌍릉, 합장릉에 묻힌 이들을 향해 빈정거리기도 한다.

홀로 외파로 떨어진 무덤은 371뿐이다. 정릉(신덕왕후), 장릉(6대 단종-강원도 영월), 사릉(단종비 정순왕후-경기도 남양주시), 외로운 고혼들이다.

태조가 젊은 시절 부하들을 거느리고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우물가에 물 길은 처녀가 있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말에서 내렸다.

"남자, 물 한바가지 주시오."

우락부락한 무장들이 우물가에 우르르 들이닥치자 처녀는 놀랐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 침착했다. 두레박으로 샘물을 길어 바가지에 부어 건네려다가 멈춰서더니 우물가에 있는 벼들일 한줌을 따서 물에 띄운다. 화가 난 이성계가 벼를 소리 질렀다.

"이게 무슨 고약한 짓이오?"

수하 장졸들은 허리춤에 찬 칼을 들쭉거리었다. 고개 숙인 처녀는 냉정했다.

"갈증으로 급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급히 드시면 목이 마를 것 같아 벼들임을 풀어가며 천천히 드십시오."

이성계는 그녀의 지혜와 미모에 감탄하여 한동안 냇을 잃었다. 이 처녀가 신덕왕후다. 가끔 들르는 고향 합흥에서 집을 지키고 있는, 촌년 냄새 물린 풍기는 본처 한씨에 비할 바 아니다.

강씨는 판삼사사 강윤성의 딸이다. 그녀의 숙부 강윤중, 강윤취 또한 고려의 고관들이다. 고려 말 권문 세력이었던 강씨의 친정은 이성계의 권력형성, 조선 개국의 큰 힘이 된다. 이성계는 팽팽한 처가 덕을 톡톡히 본다.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한씨는 거실격실한 6남2녀를 낳고 조선 개국 전 죽었다(55세, 1391년).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8월 2일 강씨는 현비로 책봉된다. 조선최초의 공식 왕비다. 방번, 방석 두 아들과 딸 경순공주를 낳았다. 태조의 집권 거사에도 친정 세력들과 참여했다. 태조의 총애 또한 흔들림이 없다. 믿음직한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이 곁에 있다. 자신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대통을 이을 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섰다. 비극의 씩이 읊는다.

태조와 은밀히 협의하여 자신이 낳은 첫째 아들 방번을 세자로 내정했으나 정도전, 배극렴, 조준 등 원로들이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고 반대해서 동생인 방석(11세)을 세자로 삼는데 성공했다. 이 때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분통을 터뜨린 호랑이가 있었다. 월기와 조식을 갖춘 필멸한 27세 청년, 방원이다.

그러나 강씨는 친아들의 등극을 보지 못하고, 아들 딸에게 엄청난 화의 덩어리를 남기고 병사했다(1396년). 출생 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추측된다. 이때 예순 둘의 태조는 군왕의 품위마저 망각하고 대성통곡했다. 사찰을 찾을



창덕궁에 방치된 정릉 난간석.

정릉 조성하고 동쪽에 흥천사 세워 조계종 본산으로 삼아 태조 죽자 태종은 묘로 격하시키고 병풍석까지 허물어 방치 세종도 "영정 불살라버려라"...정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

때만 함상 동반하고 강비가 아프면 스님을 궁에 스님을 불러들여 기도를 드리게 했다.

태조는 궁에서 가까운 도성 안에 정릉을 조성했다. 그리고 원찰(願刹)로 능 동쪽에 170여 칸의 흥천사를 세워 조계종의 본산으로 삼았다. 태조는 정릉의 아침 재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리를 들었다. 흥천사는 연산군 때 화재로 소실되고 태조의 상심을 위무했던 흥천사 대종은 몇 차례 자리를 옮겨 지금은 덕수궁에 있다.

12차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장악한 방원의 보복은 무자비했다. 그 표적에 죽은 강씨가 있다.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버린 아버지, 그의 말은 방원에게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방원(3대 태종)이 즉위하자 정릉 파괴가 시작된다. "정릉은 도성 안에 있고 능역이 광대하다. 능역 100보 밖까지 주책지로 허하노라."

태종과 코드가 맞는 하륜 등 세도가들은 얼씨구나! 다투어 정릉 숲을 베어내고 집을 지었다. 뒷방 늙은이 태조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태조가 죽자

(1408년, 태종 8년) 정릉의 운명도 곧두박질친다. 태조가 죽은 1년 후, 1409년.

"도성 안에 능이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장하다. 강비는 선왕의 둘째 부인이다. 후궁으로 예우하라."

그래서 정릉은 현 위치(양주 사현리, 현재 성북구 정릉동)로 옮기고 능을 묘로 격하시킨다. 이장작업에 정릉을 기용할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빗쟁이 이삿꾼 싸앗이, 처삼촌 밭초하듯이 무례와 무성의가 난무했다. 병풍석은 허물어 곤돌 공터에 아저했다. 이듬해 정계천 광통교가 홍수로 유실되자 그 석물들을 일부 가져다 썼다. 현재 정릉에는 병풍석이 없다. 여진 임금으로 추앙되는 세종마저 뒷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종 즉위년에 나라에서 지내던 정릉의 제사마저 폐했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세종 8년에는 신덕왕후의 영정을 불살라버려라는 명을 내렸다. 세종도 신덕왕후를 정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대역 죄인의 무덤에 버금가는, 잊혀지고 공개되는 무덤으로 변해갔다.

1669년(18대 현종10년) 11월 1일, 떨어진 낙엽을 적시는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다. 겨울비답지 않게 주룩주룩 내린다. 정릉 일대가 흥건하다. 이날은 정릉의 정자각이 완공되고 종묘에서는 신덕왕후의 신위가 260여년 만에 태묘에 배향되었다. 병예회복, 복권의 날이다. 이날 내린 비를 세원지우(洗冤之雨)라고 지금까지 전해진다.

무자식 상팔자인가. 태조와 신덕왕후는 자식들에게 단단히 혼난 이들이다. 평범한 집안이었던 어찌 그런 패륜이 있었겠는가. 그들에게 권력이란 크고 무겁고, 답글한,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있었다. 태조 등극 전에 죽은 첫째부인 한씨(신덕왕후)는 둘째 아들(정종) 가까이에서 편히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정릉은...

사적 제208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6 면적 299.574㎡(90.621평) 원래 정릉은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다. 태조가 고려 왕릉을 본떠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 조성한 조선 최초의 능이다. 현재 정릉은 이장, 복원된 것이다. 능에 오르면 병풍석 없는 봉분과 고석(받침돌)이 두 개뿐인 홍유석, 무인석은 없고 문인석만 있다. 흥천사의 운명도 정릉과 같다. 정릉 자리에 있던 절은 연산군 때 불타버렸다. 22대 정조 때 성민 스님, 경신 스님이 현재 위치에 흥천사를 중창했다.

실력있는 실행 불교인 전문 육성교육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인가 제2006-2호)

경기북부 총무원 불교대학2007년 6기 학인모집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다문화포용할 부처님 말씀위에 사상과 교리를 습득하기 위하여 초급에서 중급과정까지 맞춤 교습으로 스님과 일반인 등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실제 사찰현장 실용 불교의식을 전수 합니다.

교수진

- 불교의식 : 지도교수 인각 스님
전통있는 영산 보전회 지원아래 중요무형 문화재 50호 이수자로 구성된 실력과 덕망 있는 교수진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있는 지도전수
- 서예 : 지도교수 도암 스님
각종 서예 대전에 입상 경력이 화려하신 교수초빙 능력별 개인지도 교습
- 특강 : 초청법사 (각 분야별 최고의 권위자 초청교수)
불교학, 사찰경영, 생활역학 등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창건시 신도 관리와 상담등을 책임있게 다룰수 있는 운영방식 강의

과정

- 기본과정 (6개월)
- 중급과정 (6개월)

과목

- 불교의식학과 (사물 및 제공의식, 법배, 법음)
- 서예학과
- 특강 (불교학, 사찰경영, 생활역학)

모집인원

- 각00명

원서접수

- 2007년 3월 29일 (이수 경험자는 수시접수)

개강일시

- 2007년 3월 29일 입학식 및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특전

- 본 대학 이수자에 대하여는 경기북부 총무원 산하 각 사, 암 의식에 우선 초빙하는 혜택을 드리며 상위학습 및 연구반에 추천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문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동리 344-4 TEL 031)953-2336 / FAX 031)953-2337

※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 총무원 불교대학장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순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제 2기 동양철학강좌

무료(大) 공개 강좌
2007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 4시
육임(이춘목 교수), 현공공수(박상진 교수)

※ 교육참가대상

-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으신분
- 역학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신분
- 정년, 명퇴, 직업을 전환하실 분
- 직업에 응용하실 분 (부동산, 사주카페, 보험, 결혼상담소, 건강원, 안장업 등)

● 정규교육과정 (6개월 과정)

기문둔갑 유익중 교수 고려기문학회(회장)	기문둔갑으로 문복삼당을 40년동안 진검승부 하였고,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 육공 80여권의 책을 직접저작하여 직업강의	매주(수) 오후2시~4시 (2시간)
현공공수 한일교육교류재단	중앙대학교(중앙HRD)교육원 겸임교수 주역, 사주명리 강의, 각종 문화센터 강좌	매주(금) 오후7시~9시 (2시간)
사주명리 김재원 교수 대동미래학회(회장)	대만(송영성 선생) 중국(장영달 선생) 책번역, 사주명리, 육공, 성명학, 30여권의 책을 직접저작하여 직업강의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여 역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수리를 체계있게 용신을 잡아 역학(사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스법을 시연하게 공부시켜 드림	매주(토) 오후1시~4시 (3시간)
성명학 남성근 교수 홍은이름연구원(원장)	성명학의 대가이신 교수로부터 6개월 후 월 상백만원이상 수업을 원하시는분 (선착순 15명)	매주(토) 오후5시~7시 (2시간)
기문둔갑(기문, 중급) 유익산 교수 유익산철학원(원장)	고려기문학회 강사, 각종 문화센터 전문강사, 서울스포츠타워원 기문둔갑 강사, 사주명리·육공·기문둔갑 전문강사	매주(토) 오후7:30~9:30 (2시간)
육임 이춘목 교수 고려육임학회(회장)	명예철학박사, (현)중앙대, 한성대 겸임교수 사주명리, 육임, 성명학 등 각 대학에서 강의중, 역학계 최고 명강의	매주(일) 오전10시~12시 (2시간)
사주명리 안준희 교수 지암철학연구소(원장)	원광대 동양철학대학원(명리학, 석사과정)출생, 각종문화센터 강의중, 역학계 최고 명강의	매주(일) 오후2시~5시 (3시간)

'최고 강사진'의 실력과 체계적인 원리 전문성을 통해 학습하는 전문역학원
근대한불교 임제종 인정사 부설 인성역학원
<서울 창동역 (지하철1,4호선) 1번출구 100m>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 씨티월드 3층 02)992-5110, 993-5111